

#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발전방안 연구

## -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의 과제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약리학교실<sup>5</sup>,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sup>1</sup>,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sup>2</sup>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sup>3</sup>,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sup>4</sup>

이무상 · 서덕준<sup>1</sup> · 양은배 · 채종일<sup>2</sup> · 채규태<sup>3</sup> · 안덕선<sup>4</sup> · 김동구<sup>5</sup>

= Abstract =

### The Development Tasks of Medical School Accreditation in Korea

Moo-Sang Lee, MD, Duk-Joon Suh, MD<sup>1</sup>, Eun-Bae Yang, PhD, Jong-Yil Chai, MD<sup>2</sup>,  
Gue-Tae Chae, MD<sup>3</sup>, Duck-Sun Ahn, MD<sup>4</sup>, Dong-Goo Kim, MD<sup>5</sup>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Pharmacology<sup>5</sup>,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hysiology,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sup>1</sup>, Department of Parasit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sup>2</sup>, Department of Pathology, Catholic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sup>3</sup>,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sup>4</sup>*

The Accreditation Board for Medical Education in Korea, ABMEK, is nongovernmental appraisal organization that was established at July 2, 1998. The organization i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medical education by progressing the first cycle accreditation successfully. But, the organization has various problems and subjects related to the accreditation system. The authors examined the related literature focusing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accreditation syste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as as follows. First, the ABMEK needs to propel legal personality of organization and should install independent executive office. Second, the ABMEK should establish the alteration procedure of accreditation standards and develop the accreditation standards of the second cycle that take into account international flowing of medical education. Third, the ABMEK must decide forms and scope to investigate medical college present situation. Finally, to propel development tasks effectively, it needs to get the recogni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Key Words:** Accreditation, Developmental task, ABMEK

책임저자: 이무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Tel: 02)361-5804, Fax: 02)364-5450  
E-mail: msluro@yumc.yonsei.ac.kr

\* 이 연구는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서 론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고등교육의 대중화 정책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설  
립되어 오면서 대학이 교육의 자율적인 운영주체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과는 달리 이들 대학의 기능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질적 수준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1980년대에 서야 시작된 일이다.

우리나라의 대학평가 역사는 일반적으로 네 단계를 거쳐서 변천되어 온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1960년대의 대학 평가는 대학의 위법 사실에 대한 적발과 징계를 목적으로 교육부(당시 문교부)가 주도한 국·공립 대학에 대한 평가였으며, 정부의 주도로 실시된 이 1960년대의 대학평가는 대학인가, 학과의 증설, 입학정원 조정 등 행정적 처리를 위한 자료수집 기능을 넘어서지 않았다(김용일 외, 1988). 둘째, 1970년대는 실험대학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실험대학 평가를 위해 대학의 교수가 중심이 된 평가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의 평가 기능과 학사개혁에 대한 대학의 자율적 검토 기능이 강화되었다. 셋째, 본격적으로 대학평가 기능이 검토되고 법적인 구성요소를 갖게 된 것은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족되면서부터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기관평가와 학문영역 평가를 1991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는데, 박부권(1995)은 이 시기에 이루어진 대학평가는, 대학으로 하여금 평가결과로 나타난 약점과 미비점을 대학 스스로 보완하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평가받은 회원 대학의 어려운 처지를 모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교육부에 요청하는 기회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분석하였다. 1992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과평가인정제를, 1994년부터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넷째,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국대학교육협회의의 대학평가인정제도가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한다거나, 전문 학문 영역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민간자율 평가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 7월의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와 1998년 말의 한국공학인증원과 같은 민간자율 평가기구의 설립은 해당 학문분야의 질적인 향상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자발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앞으로 이들 민간 자율평가기구는 점차 한국대학교육협회의의 학문분야별 평가인정제도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출범이후 의과대학 인정평가를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평가준비를 하여 왔으며, 1999학년도에 8개 신설 의과대학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2000학년도와 2001학년도에 각각 3개의과대학에 대한 본 평가를 완료하였다. 이처럼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민간자율 평가인정 기구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사업 현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가 갖고 있던 내부문제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관점과 계획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발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이 연구의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조직 및 사업 현황과 문제점 분석은 먼저, 조직 및 사업 영역별로 현황을 기술하였으며,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사업현황 및 문제점은 인정평가사업과 대학현황조사 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대학평가제도에 대한 고찰 결과와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이들 발전 과제는 조직, 인정평가 사업별로 도출하였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발전 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연구위원들이 영역별로 분담하고 공동 워크숍 작업을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발전 과제는 조직과 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하였으며,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수립되었다.

## 결 과

### 1. 위원회 조직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조직 현황 및 문제점은 위원회의 성격, 산하기구 및 행정체계, 의사결정과정, 위원구성, 위원회 규정 및 재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위원회 성격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의학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와 한국의학교육학회가 그 설립을 제안하고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그 산파 역할을 담당하여 1998년 7월 설립된 순수 민간자율 평가기구이다. 민간 자율기구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에 바탕을 두고 정부의 어떠한 간섭과 이해관계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의학교육계 스스로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자율 기구라는 특성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대학에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의과대학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평가대상 대학이 평가를 거부할 경우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다. 둘째, 평가의 공신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셋째,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적절한 보상 및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 지원 및 제한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넷째,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대안을 갖기가 어렵고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권익단체라는 특성상 재정 지원이 자칫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 산하기구 및 행정체계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산하 조직으로 3개의 실무위원회, 사무국, 방문평가단을 두고 있다. 3개의 실무위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획, 평가기준개발 및 대학현황조사 실무위원회로 구분된다. 또한, 전국 의과대학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194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를 위한 방문평가단 풀이 있다. 이 방문평가단 풀에서 매년 현지방문평가를 수행하는 교수를 위촉하여 서면·현지방문평가를 실시한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은 대한의사협회 학술국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연세대의 의학교육학과에서 평가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그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구 및 행정체계의 기능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사무국을 권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활동의 고유한 목적이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서면·현지방문평가단 풀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정규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셋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전임위원장 및 의학교육계의 지도자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차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 의사결정과정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본 위원회이다. 본 위원회는 년 2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위원 위촉 및 인준, 평가기준의 심의·인준, 평가결과의 인준 및 예·결산의 심의 인준, 규정의 개정 등을 최종 결정한다. 그 외 대부분의 업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실무위원장 및 감사로 구성된 임원회의에 위임되어 있다. 또한 본 위원회 산하 3개의 실무위원회는 본 위원회 및 임원회의의 위임을 받아 각각의 사업을 시행한다. 즉,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실무는 【본위원회 → 임원회의 → 실무위원회 → 사무국】의 체계로 실현된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은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본 위원회에서 임원회의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수행업무 및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무위원회 상호간의 역할갈등 및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정부, 언론·사회단체 등의 대표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본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교육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및 학생 등의 참여가 없어 이들의 의견이 수렴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 위원구성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당연직 10명 내외, 전문직 5명 내외로 총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위원은 의학, 의료, 병원계의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인사와 사회, 언론, 시민단체의 대표 및 정부기구의 대표로 구성되며, 전문직위원은 의과대학 인정평가업무에 밝은 교육학 및 의학교육전문가로 구성되고 필요시 임회인을 3인까지 둘 수 있다.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연직위원의 잦은 교체이다. 추천을 통해 해당 기관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원이 해당 기관의 재임기간이 끝나면 후임대표로 교체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당연직위원의 잦은 교체는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갖게 한다. 둘째, 당연직위원의 잦은 교체에 따른 문제를 감안하면 전문직위원이 실무위원장을 제외하고는 2~3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전문직위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셋째, 현재와 같이 적은 수의 사회단체 대표의 참여로는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제한 요소가 된다. 넷째, 상호유기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산하 실무위원회 간의 점입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실무위원회는 위원의 50%가 중복됨으로써 각 실무위원회 고유의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인력의 개발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위원회 규정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1998년 7월 그 설립과 함께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사업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제반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착되기 전까지는 보완될 여지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조직과 관련된 규정은 본 위원회의 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운영되어 오다가 2001년 7월 1일에 정식으로 위원회의 규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즉,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사무국의 구성 및 역할,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정보의 열람 및 공개, 회계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

원회의 핵심적인 활동 중의 하나인 인정사업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 위원회 재정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재정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 및 후원단체의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과 평가대상 대학의 부담으로 충당하여 왔다.

현재,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재정관련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한의사협회의 후원으로 재정이 충당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재정의 근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활동이 대한의사협회에 종속되거나, 대한의사협회의 사정에 따라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설립목적이 국내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의과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점을 생각하면 교육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으로 양질의 의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결과론적 수혜자인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재정 및 활동과 관련한 사회기관의 후원이 없다는 점 또는 사회기관의 후원을 받으려는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2. 인정평가 사업 현황 및 문제점

인정평가 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은 1999학년도에 8개 대학에 대한 예비평가, 2000학년도 및 2001학년도에 각각 3개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평가대상 및 평가주기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인정평가 대상 및 평가주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는 대학에 대한 인정평가 실

시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인정평가는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1년 주기의 임시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인정을 실시한 적이 없다. 물론 1999년도에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는 대학에 대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시행되었으나, 이 평가는 1996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의학과 평가를 받지 않은 대학에 대한 자문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에서도 이 평가를 예비평가라고 지칭한 바 있다. 둘째,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는 대학을 인정평가 대상으로 할 경우에 2002학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한 개 대학만이 해당되어 추가로 신설의과대학이 생기지 않는다면 평가 대상이 없어지게 된다. 셋째, 4년 주기의 평가주기는 공학교육인증원의 6년, 미국의 7년, 호주의 10년 주기에 비하여 매우 짧은 것으로 대학 자체평가 기간 등을 감안한다면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이 크다.

### 인정유형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인정유형은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학에는 인정, 조건부인정, 인정유예로,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는 대학에는 임시인정, 조건부임시인정 및 인정유예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인정유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인정평가 기준에 따르면, 인정, 조건부인정, 인정유예를 결정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여건을 종합 판정하도록 하고 있어 인정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조건부인정 또는 인정유예라는 용어는 평가대상 대학 및 일반소비자에게 강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게 되며, 이는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자칫 부속병원에 대한 평가결과로 생각하게 하는 현실적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 인정평가 기준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는 인정평가를 위한 타당하고 신뢰받을 만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1998년 9월 8일 ‘평가기준개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 개발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안)」을 개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999.6.18)에서 최종 인준을 받았다. 이 기준은 1999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 의과대학 평가에 적용되면서 지적된 몇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수정·보완되어 왔으며, 그 결과 ‘2001학년도 의과대학 의학과 인정평가 기준’이 최종 확정되었다. 2002학년도 의과대학 의학과 인정평가 기준에서는 그동안 일부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기초의학 교원 수’에 관한 기준이 필수기준에서 권장기준으로 변경하는 선에서 수정되었다.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인정평가 기준이 한 주기 내에서 잦은 변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평가기준 변경을 위한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수렴과정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평가기준의 변경에 관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셋째, 평가기준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변경되어야 하는가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넷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수집 기간에 대한 논리성 결여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평가기준의 자료수립 기간을 최근 2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은 4년의 인정평가 주기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자료수집 기간을 4년으로 할 경우에는 대학의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 인정평가 절차

의과대학 인정평가는 ① 인정평가 신청 및 대상 기관의 선정, ② 대학의 자체평가 연구, ③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④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 ⑤ 인정평가 심사 및 판정, ⑥ 결과통보 및 발표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정평가 절차와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정평가 신청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에 따라 평가희망 연도가 특정연도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대학의 자체평가 연구기간이 3~6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게 설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학의 개선노력 기간이 짧다.

### 평가보고서 작성

대학의 서면·현지방문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은 평가단에 위임되어 있으며,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에서 검토, 보완된다. 방문평가단의 평가보고서는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집중작업을 통해 최종 완성되고, 평가보고서는 다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된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대학별 평가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사람이 한 대학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나타나는 평가보고서의 일관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 둘째, 한 사람이 여러 대학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됨으로써 대학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보고서의 차별화에 관한 문제가 있다. 셋째, 평가보고서 작성의 책임을 맡고 있는 평가단장은 각각의 평가영역별 결과를 종합·제언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평가단장이 특정 평가영역을 맡아 평가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종합·제언하는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

### 결과활용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대학에 권고하거나 조언하는 자료로 사용하며, 관련기관이 적절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활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평가결과의 활용은 인정평가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경쟁관계

조장, 서열화 등 우려의 목소리에 의해 평가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정부, 의학교육계와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 3. 대학현황조사 사업 현황 및 문제점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의학교육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1999년 3월 대학현황조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현황조사 양식을 개발하고 수정·보완하고 있다.

대학현황조사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대학현황조사는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에서 격년으로 발행하는 의과대학교육현황집과 자료수집과정의 일원화를 통해 피평가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셋째, 자료수집결과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기관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

### 4. 의평위 중·장기 발전과제

#### 조직 발전과제

순수 민간자율 평가기구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인정평가가 공신력과 사회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평가의 기피현상을 줄이고 평가결과의 활용범위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법인격을 갖는 위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계 및 의료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단기적으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가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한국의학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즉 한국의학원의 산하기구로 편입되어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현재와 같이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재정의 위탁 관리만 대행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견지에서는 가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설립하고 의과대학 인정평가, 의사면

허시험 및 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과 함께 논의되는 의학적성검사시험 및 임상의학입문시험, 임상의학 종합평가시험 등을 총괄하는 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전문적 행정지원 체제를 갖춘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학술국에서 대행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사무국의 운영은 의과대학 평가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특히, 2002학년도 및 2003학년도 평가대상 대학 수를 감안할 경우에 대한의사협회 학술국의 업무대행만으로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다.

전임 위원장 및 의학교육계 원로를 중심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주요 사업에 의견을 개진하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위원구성은 당연직위원에 비례하여 전문직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산하 실무위원회 상호간에는 과도한 위원의 중복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소비자 및 사회단체 대표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또, 의과대학 인정평가가 사회적 공익을 위한 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1년 7월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아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규정에서 세부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조속히 규정으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각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혼란 및 역할 혼란을 막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재정은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의 지원금 및 대학별 분담금으로 확보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재정은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의사인력을 활용하는 주체인 대한병원협회가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재정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해야 하며,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활동이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는 측면에서 정부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평가사업의 위임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단체 및 보험자 단체의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평가결과의 공개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비, 학술대회 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 방안이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위원, 대학별 자체평가위원 및 방문평가단 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전문성 정도, 가능한 평가담당 영역 분류, 대학평가와 관련된 교육경험 정도 등으로 구분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메일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위원회의 활동 및 대학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해당대학의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그 활동의 중요성에 비하여 홍보활동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활동 즉, 연도별 평가사업 계획 및 평가결과 등이 전문지뿐만 아니라 일반언론 및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개, 홍보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홍보자료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소식지 등을 발간하여,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위원, 방문평가단 풀, 의과대학 및 관련기관 메일링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유용한 홍보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의과대학 인정평가 사업의 발전과제

인정평가 사업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는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대학으로 평가대상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2002학년도 현재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지 않은 대학은 1개 대학으로 실질적으로 2003학년도부터는 임시인정에 해당하는 예비평가대상 대학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의과

대학 신설의 경우에는 의학교육계 및 의료계의 합의로 도출된 의과대학 설립준칙을 적용하여 부실한 의과대학의 신설을 막는 예방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 선정에 있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문분야평가, 신설대학평가 및 대학종합평가에서의 평가대상 중복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정평가 주기는 평가대상 대학의 부담 및 타 인정평가 기관의 인정주기를 감안하여 재조정되어야 하고, 인정유형은 인정 유효기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인정(차기심사), 인정(중간보고), 인정(중간방문)등으로 그 단계를 구체화하여 부정적 이미지 과급 효과를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의과대학 인정유형인 완전인정, 조건부인정, 인정유예에 해당하는 구체적 판정기준을 개발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며, 해당 평가주기 동안은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주기 내에서의 잦은 변경은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가능하면 해당 주기에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기준 변경 절차 및 평가기준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화 될 필요가 있다.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은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간의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의 현실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지침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모든 대학에 대하여 타당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나, 평가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될 경우에는 일부대학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의과대학간에 나타나는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평가기준별로 필수기준과 권장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2주기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1주기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하는 제2주기 평가기준의 개



발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의과대학 평가기준을 상호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대학 자체평가는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따라서 대학별 자체평가 기구를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의학교육의 제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과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획성 있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대상 대학에 발송되는 자체평가 지침서 중앙적 지표에 대해서는 일정한 서식을 제작한 후 제공하여 평가대상 대학별 계산 방식의 차이, 진술방식의 차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오기를 최소화 해야 한다.

현지방문평가단 구성 인원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방문평가단은 영역별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2명, 학생 1명, 교수 1명, 시설·설비 1명 및 행정·재정 1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단장이 위 영역 중 한 분야를 맡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단장이 해당 대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 및 제언을 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영역 평가를 담당하지 않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별 현지방문평가에서는 영역별 평가 외에도 평가단 교수와 대학별 자체평가 위원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영역별 평가에서 중복내용을 피하며, 종합평가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별 평가보고서 작성은 평가보고서의 대학별 차별화, 평가자간의 일관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문평가단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별 평가결과의 공개는 인정평가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경쟁관계 조장 및 서열화 우려 등으로 적극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교육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의과대학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대상 대학에게도 자극제의 역할을 하여 질적 향상을 돕는 것이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공익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대학별 평가결과는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인정하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의과대학 인정평가 결과가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과 연계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졸업후 교육자 선발에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대학별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또한 평가 인정 결과는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등의 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국제인정기구와 공유함으로써 국제적 교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평가결과를 국제인정기구와 연계하는 방안은 국내 의과대학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자극이 될 수 있으며, 인적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대학현황조사 사업의 발전과제

대학현황조사 사업은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각 기관의 사업 목적에 따라 결과를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현황조사는 인터넷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대학들이 수시로 자료를 수정, 보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화되어야 하며, 제2주기 평가가 시작되는 2004년 전까지는 그 체제를 완비하고 평가자료로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 요약 및 결론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1998년 7월 2일 의학교육계와 의료계의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해 순수 민간자율 평가기구로 설립되었다. 한국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는 의과대학 인정평가를 위한 인정규정과 평가기준을 개발하였으며, 1999학년도 8개 신설 의과대학, 2000학년도와 2001학년도에 각각 3개 의과대학에 대한 인정평가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제1주기 2차년도 의과대학 인정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수행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그 동안의 의과대학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들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많은 과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국내 최초로 민간자율 평가기구로 설립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위원회는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평가제도에 대하여 문헌고찰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위원의 분석과 자문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사업 분야별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한 과제를 수립하였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조직은 민간자율 평가기구로서 법인격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평가결과의 활용이나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사무국을 대한의사협회 학술국에서 대행함으로써 권익단체로 오해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구성 및 의사결정과정 등에 세부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재원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후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의과대학 인정평가 사업은 평가대상 및 평가주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정유형에 대한

검토 및 인정을 위한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정평가 기준의 변경과 의견 수렴 절차가 명문화될 필요가 있으며, 평가보고서의 일관성과 차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의학교육의 국제적 흐름을 감안한 제2주기 평가기준의 개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셋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대학현황조사 사업은 대학현황조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미진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분석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연구위원의 검토와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중·장기 발전 방안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가 중·장기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하며, 위원 및 산하 실무위원회 위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직위원을 보강하고 사회단체대표를 위촉하여 공익성을 신장하고,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각종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인정평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둘째, 의과대학 인정평가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평가기준의 개발과 변경 절차를 확립하여 평가기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문평가단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며, 합리적인 현지방문평가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주기 평가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평가대상, 평가주기 및 인정유형에 대한 발전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별 자체평가 지침의 구체화, 양적지표 조사양식의 개발 및 대학별 평가보고서 작성지침을 개발하여 인정평가 사업의 내실화를 추구하여야 하며, 인정평가제도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대학현황조사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과

대학 인정평가를 위한 조사영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와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대학현황조사 양식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발전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발전방안 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하 실무위원회별로 해당 발전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인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및 각 의과대학의 지원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김용일, 김영명, 최삼섭, 노관택, 안윤옥, 황정규, 강경석: 의과대학 평가를 위한 준거개발과 그 적용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제86-12-57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8

맹광호: 학문계열평가의 방향과 과제: 의학과 평가 인정제 모델을 중심으로. 연세의학교육 2(1):17-30, 2000

박부권: 대학평가인정제와 대학개혁. 대학교육 77: 24-32, 1995

서덕준: 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와 공학교육인증원의 비교. 연세의학교육 2(1):57-69, 2000

양은배: 의과대학 자체평가 방법과 결과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의학교육 3(2):237-248, 2001

양은배: 의과대학 평가인정 기준의 타당도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연세대학교, 2000

이종성, 이무상: 대학평가인정 제도와 의학교육 평가. 연세의학교육 2(1):1-15, 2000

이현청: 21세기 대학평가의 접근과 활용방안. 대학교육 98:78-83, 1999

이화국: 미국대학의 평가인정제 변천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연구 9(2):131-156, 1997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설립실무위원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ABEEK) 설립관련 제반규정초안 (공청회

자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설립실무위원회, 1999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1998년 의과대학 인정평가: 제1차 활동보고서. 1998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Physicia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Washington, DC, 1984*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n medical education programs leading to the M.D. degree. Washington, DC, 1995*

Australian Medical Council: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medical schools. 2nd ed, Australian Medical Council, Canberra, 1998*

Bandaranayake RC: *Assessment of quality of medical education through accreditation. Proceedings of the WHO/AMEWPR meeting in quality assessment of medical Education: Focus on medical licensure examinations, Korea, Seoul. 1996*

Boelen C: *Prospects for change in medical educ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ademic Medicine 70(Suppl. 7):21-28, 1995*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About CHEA. <http://chea.org/About/index.html>, 1999*

Hamilton JD, Vandewerdt JM: *The accreditation of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in Australia.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53(9): 541-545, 1990*

Kassebaum DG: *The measurement of outcomes in the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am effectiveness. Academic Medicine 65(5):293-296, 1990*

Kassebaum DG, Eaglen RH & Cutler ER: *The influence of accreditation on educational change in U.S. medical schools. Academic Medicine 72(12):1128-1133, 1997*

Stevens RA: *International medical education and the concept of quality: Historical reflections. Academic Medicine 70(Suppl. 7):11-18, 1995*